

- 본문 : 사사기 1장 1~7절
- 제목 :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3.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4.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5.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칠십 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줌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이면서 저술가였던 에이든 W. 토저는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저술했다.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 토저는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양식에 굽주려 있지만 누구도 세상과 멀리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불신자들처럼 낙심하고 포기하며 절망가운데 살아간다. 과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본 질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삿1:1~2)
2.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한 후 땅을 분할하여 분배를 받았는데 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수23:5~13 ; 24:14~15)
3.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싸워야 할 적이 분명히 있다. 3가지 “적”은 무엇인가?
* 갈라디아서 5:17
* 요한일서 2:15~16, 로마서 12:2
* 베드로전서 5:8, 에베소서 6:12
4. 당신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순간 계속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 땅에서 남은 전쟁을 계속 치러내면서 나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사사기 1장 후반부에서 실패의 후렴구처럼 나오는 “쫓아내지 못했다” 표현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19, 21, 27, 29, 30, 31, 33, 34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참고, 삿2:2)
6. 이스라엘 지파들은 결국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죄악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의 퇴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정리한 두 가지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결단을 함께 나누어보라.

· 말씀기도제목

1. 악속의 땅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타락한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과 ‘마귀의 유혹’ 속에 죄와 타협하며 무너진 예배생활이 이제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사사기를 통해 「악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받을 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